

靑綠, 도가의 선약, 선계의 표상*

— 청록과 청록산수화의 행위자성(Agency)

劉美那**

- | | |
|-----------------------|----------------------|
| I. 머리말 | IV. 청록의 도교적 함의와 행위자성 |
| II. 청록의 안료와 색채 | V. 맺음말 |
| III. 청록의 石藥과 연년장수의 효능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록산수화의 녹·청색 안료를 이루는 남동광과 공작석이 예로부터 의료용 약재이기도 하고 도가의 단약에 쓰이는 仙藥이기도 했던 점을 문헌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청록의 색채와 안료, 그리고 청록산수화에 함축된 도가적 상징을 고찰하였다. 石靑·石綠으로 대별되는 청록의 안료는 주요 本草書에 空靑·曾靑·扁靑·白靑 등의 石類 약재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輕身, 延年, 不老 등의 효능과 심지어 神仙으로 화한다는 효능이 명시되어 있어 예로부터 仙藥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金丹을 연조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한 금단도에서 주요 선약으로 일컫는 五金八石에 空靑이 포함되어 중시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또한 조선시대 문학에서 선경을 묘사한 修辭 중에 유독 ‘碧’·‘翠’·‘蒼’·‘靑’·‘綠’의 색채어가 적극 사용된 점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록산수화에 표현된 청록의 산과 바위는 공청·증청 등의 선약과 불로장생과 우화승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2020년 11월 7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주최 “예술의 주체-한국회화사에서 에이전시Agency를 찾다”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부교수

선의 약효를 연상시켰을 것이고, 선계의 시각적 재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술의 사회적 관계망(Art Nexus) 속에서 물질 지표(Index)인 청록 안료와 청록산수화가 능동적 주체로서 화가와 감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성(agency)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주제어 : 청록산수화, 석청, 석록, 공청, 도교, 신선, 알프레드 겔(Alfred Gell), 행위자성

I. 머리말

청록의 안료는 채색화를 이루는 주요 재료로서 그 원료는 남동광(藍銅鑛, Azurite)·공작석(孔雀石, Malachite) 등의 광석에서 추출하여 예로부터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다. 채색 산수화에서 청록의 안료는 산과 수목 뿐 아니라 언덕과 돌에도 사용되며 그 영롱한 빛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특히 두 색조를 부각시켜 ‘청록산수화’라 칭해졌다.

청록산수화는 중국 唐代에 원형(prototype)이 이루어진 이래 그 양식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전승되어왔다.¹⁾ 唐代의 李思訓·李昭道, 북송의 趙令穰, 남송의 趙伯駒·趙伯肅을 잇는 양식 계보가 형성되었고, 원대에는 錢選·趙孟頫 등이 古意를 되살리는 매체로 사용하며 청록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청록산수화는 의식적으로 먼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여 故事·역사화를 다루거나, 隱者의 탈속한 공간 혹은 현실을 넘어선 仙界를 추구하고 상징하였다.²⁾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작품의 주제·제재·양식은 청록산수화의 원형(prototype)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록산수화에서 청·록의 두 색조를 이루는 광물성의 물질이 전통적으로 의료용 약재이기도 하고 도가의 단약에 쓰이는 재료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록이라는 색채와 안료, 그것이 이루어내는 청록산수화의 도가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³⁾ 더 나아가 청록이 다만 색채일 뿐 아니라 도가에서 회구한

1) 청록산수화의 개념과 역사, 유형 분석에 대해서는 이수미, 「조선시대 청록산수화의 개념과 유형」, 『靑綠山水畫·六一帖』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유물도록 제14집, 국립중앙박물관, 2006, 184~192면; 문동수, 『청록산수, 낙원을 그리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박혜영, 「조선 후반기 靑綠山水畫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중국회화에서 청록에 대해서는 Quincy Ngan, “The Materiality of Azurite Blue and Malachite Green in the age of the Chinese Colorist Qiu Y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h.D. dissertation, 2016; Quincy Ngan, “The Significance of Azurite Blue in Two Ming Dynasty Birthday Portraits,” *Metropolitan Museum Journal* 53, 2018. Quincy Ngan의 청록의 상징 및 회화적 표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선시대 회화에서의 청록에 대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2) Richard Vinograd, ‘Some Landscapes Related to the Blue-and-Green Manner from the Early Yüan Period’, *Artibus Asiae*, Vol. 41, No. 2/3, 1979, 101~131면.

3) 청록의 안료 및 청록산수화의 도교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John Hay, *Kernels of Energy, Bones of Earth—the Rock in Chinese Art*,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85; Quincy Ngan, *ibid*, 2016, 31~75면 참조.

仙界 및 불로장생의 상징과 갈망을 표상하는 보다 능동적인 행위자(agent)로서 미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작용(agency)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영국의 인류학자 알프레드 겔(Alfred Gell, 1945~1997)의 이론의 도움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회화 작품은 화가 혹은 주문자의 의도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물질이 행위자가 되어 작품 제작의 사회적 관계망(art nexus) 속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청록의 안료와 색채, 그리고 전통의학과 도교에서의 청록 광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도교에 대한 조선 문사들의 관심이 증대된 조선중기에 초점을 맞추어 청록 색채와 안료, 그리고 청록산수화가 함축한 도교적 상징성이 미술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행위자성을 지니게 된 사례를 작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II. 청록의 안료와 색채

한국인의 전통적인 색채 인식은 음양오행 사상에 바탕을 두었으며, 태극의 생성, 음양의 변화와 조합으로 형성되는 五方正色이 그 근본이 되었다. 이들 다섯 가지 정색 사이에 놓인 중간색을 間色이라고 했으며, 이는 다시 相生間色과 相剋間色으로 구분되었다. 오방정색은 청·적·황·백·흑이며, 이 중 청색은 방위로는 동방을

4) 알프레드 겔은 미술 작품의 제작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를 행하며, 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4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네 가지 요소들은 지표(Index)·예술가(Artist)·원형(prototype)·수령자(recipient)이다. 여기서 지표(Index)는 작품을 말하고 예술가(Artist)는 제작자, 원형(prototype)은 지표(Index)가 재현하는 대상, 그리고 수령자(recipient)는 후원자 및/혹은 감상자이다. 이들 네 요소 간의 인과 관계 혹은 능동적 작용과 수용의 관계를 행위자(agent)와 피동작주(patient)로 위치시켜서 미술관계망(Art Nexus)의 다양한 도식을 유추하였다. 이 때 작용/영향을 행위자성(Agency)이라고 한다. 그가 제시한 도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인간인 예술가(Artist)가 자신의 의지와 창작력으로 작품(Index)을 생산하는 유형, 그러니까 예술가(Artist)가 행위자(Agent)이고 지표(Index)가 피동작주(Patient)인 유형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상황, 즉, 지표(Index)가 능동적 행위자가 되어 예술가(Artist)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고 하였다.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Clarendon Press · Oxford, 1998 참조, 각 용어의 번역어는 이경목, 「물건의 힘과 작동-망(work-net)의 상상력: 행위소로서의 인간·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재고」, 『비교문화연구』 22(1), 2016, 327~328면을 참조했다.

오행으로는 木, 계절로는 봄에 속한다. 상극간색은 綠·紅·碧·紫·驪黃이고, 상생 간색은 靑·纁·硃·黠·黠·黠, 黠이며 함께 십간색을 이룬다. 색채 간에는 위계가 있어서 오정색은 양에 해당되며 상위의 색이고, 간색은 음에 해당되며 하위 색이다. 따라서 정색인 청색은 간색인 녹색에 비해 상위의 색이 되는 것이다.⁵⁾

천연 안료로서 청록의 색을 내는 대표적인 안료는 石靑과 石綠이다. 이들은 동광맥에서 산출되는 염기성탄산동 성분의 광석인 남동광(Azurite)과 공작석(Malachite)을 분쇄·수비하여 제작된다. 남동광과 공작석은 같은 銅脈에 양자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매우 비슷한 광물이지만, 남동광이 동의 함유량이 더 많다고 한다.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공작석보다 고가이다. 이 외에 청색의 천연 광물성 안료로 청금석(lapis lazuli)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주산지로서 回回靑이라 불리었으며 안료 중 가장 고가이다. 한편, 동광을 합성시켜 제조한 인공안료인 銅綠은 석록의 대용품이었고, 이 밖에 점토에서 얻은 綠土가 있다.⁶⁾ 청색의 유기안료로는 쪽(藍)이 있는데 식물성 염료로서 착색력이 좋고 견뢰도가 강해 회화에서도 안료로 사용되었으며 남동광과 함께 밑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입자가 굵은 무기안료에 비해 염료물감은 입자가 작아서 겹쳐 칠하여 다양한 중첩색을 얻을 수 있었다.⁷⁾

중국 문헌 중의 안료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元代 陶宗儀의 『輟耕錄』과 명대 『天工開物』, 『개자원화전』 등에 수록된 내용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특히 청록의 안료와 색채에 집중하여 살피고자 한다. 먼저 『철경록』에서 도종의는 인물을 그리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색채와 그 색채를 내기 위한 안료의 배합법을 기술하였다. 柏枝綠·黑綠·柳綠·官綠·鴨頭綠·藍靑·雅靑·玉色의 색채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면서 枝條綠·漆綠·螺靑·蘇靑의 안료 배합법을 설명하였는데 이들 안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유기안료인 것으로 여겨진다.⁸⁾ 또한 옥색과 남청색을 내는데에는 高三綠·三靑의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색을 내는데

5)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125~137면. 李漢, 『星湖僿說』 권5, 萬物門, 「綵色」.

6) 이상현, 『전통 회화의 색』, 가일아트, 2010, 42~48면.

7) 이상현, 위의 책, 155~160면.

8) '색을 칭하는 이름'을 '색채명', '채색의 안료를 칭하는 이름'을 '안료명' '문인들이 시문에서 대상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를 '색채어'로 구분하여 사용한 고연희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고연희, 「문헌으로 살피는 조선 후기 색채(色彩) 인식」, 『民書연구』 8,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 2019.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안료로 頭靑・二靑・三靑・深中靑・淺中靑・螺靑・蘇靑, 그리고 二綠・三綠・花葉綠・枝條綠・南綠・油綠・漆綠이 열거되었다.⁹⁾ 이 가운데 頭靑・二靑・三靑은 남동광, 二綠・三綠은 공작석으로 제조한 이른바 석청・석록이고, 심중청은 검푸른 빛깔의 鐵砂彩 안료이다. 천중청의 경우 확실하지 않으나 심중청과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나머지 안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明末의 『天工開物』(1637)의 권16의 「단청」에는 朱와 墨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었고, 청록의 안료인 大靑・銅綠・石綠은 간략하게 안료명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대청・석록의 경우 「珠玉」권에 다시 수록하여 설명하였다. 「주옥」권에서 청록 광석으로 瑟瑟珠・玕母綠・鴉鵲石・空靑・曾靑을 열거하였다.¹¹⁾ 이 중 공청과 증청이 남동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격적인 회화 전문서적이며 회화교본으로 인기가 높았던 『개자원화전』 제1집(1679)에 수록된 「設色各法」에는 석청과 석록 안료의 사용법과 제조법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먼저 석청에 대해서는 매화편의 일종을 써야한다고 했는데, 이는 남동광의 일종을 일컫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어 석청을 분쇄한 입자의 굵기에 따라 頭靑・二靑・三靑으로 나뉘고, 입자가 미세한 두청의 경우 염료로도 쓸 수 있고, 二靑은 청록 산수화의 주요 부위에 쓸 수 있으며, 三靑은 입자가 굵고 색이 더 진하여 나뭇잎에 칠하거나 비단 배체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어 석록에 대해서도 頭綠・二綠・三綠의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하였다.¹²⁾ 이 외에 靛花・草綠・蒼綠의 안료가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식물성의 유기안료이다. 특히 쪽에서 추출하는 전화에 대해서는 “초즙으로 만든 물감 중의 가장 찬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녹색을 합성하기도 하고 석청을 가염하기도 하여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하며 상세한 설명이 있다.

9) 陶宗儀, 『輟耕錄』 권11, 「采繪法」. 도종의의 채색 관련 부분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중의 「畫家顏色」에 인용되었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0, 「盛葉記」七, 「畫家顏色」.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이재수 역, 1981) 참조.

10) 심중청은 국내에서도 채취했던 기록이 있다. 深重靑은 검푸른 빛깔의 鐵砂彩 안료로서 주로 황해도 遂安에서 채취되었다.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DB』, 선문대학교, 2012,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검색.

11) 『天工開物』 卷下, 「丹青第十六卷」; 「珠玉第十八卷」, “屬靑綠種類者爲 瑟瑟珠 玕母綠 鴉鵲石 空靑之類. 空靑既取內質其膜升打爲曾靑.”

12) 王槩, 『芥子園畫傳』 1집 제1책, 「設色各法」; 문동수, 앞의 책, 38면; 신현옥, 앞의 논문, 7~52면; 박혜영, 앞의 논문, 29면.

草綠·蒼綠은 전화와 등황·대자 등을 섞어서 만든 안료로서 섞는 비율이 설명되어 있다.¹³⁾

중국 문헌에 언급된 다양한 안료명과 색채명은 우리의 고문헌에도 등장한다. 청록의 색채명은 특히 비단의 다양한 색상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610(광해군 2)년에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서 진상한 물품 목록을 보면 官祿·油綠·翠藍·天靑 등의 비단이 언급되었다.¹⁴⁾ 복식에 사용된 색상으로도 黻色·靑黑色·鴉靑色 등과 柳靑·藍靑·草綠·玉色·靑碧色 등의 색상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었다.¹⁵⁾ 녹·청의 색조가 이처럼 다양하게 인식되고 사용되었다는 점이 놀랍다. 복식을 언급한 것이므로 대부분 유기안료가 사용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조선 문인들의 시문에 사용된 색채어도 다채롭다. 조선전기 金安老가 일본병풍을 보고 묘사하기를 “원산의 갈까마귀 심청색이고 근산의 운무는 荷碧色이네. 그림에 深重靑·荷葉綠 등 채색을 사용했다.”고 하였다.¹⁶⁾ 그림에 표현된 색채를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였고, 심중청·하엽록이라는 사용된 안료명까지 파악해낸 그의 감식력이 돋보인다. 조선후기의 문인화가 강세황 또한 타고난 예술적 감각을 토대로 색채에 대한 세심한 인식을 하였음을 「綠畫軒記」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로부터 山色을 말할 때 ‘靑’, ‘碧’, ‘蒼’, ‘翠’라 했고 ‘綠’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봄을 맞이할 때 어린 나무 잔풀로 산과 언덕이 옷을 입으면 오직 ‘綠’뿐이다.”라고 하여 녹색을 지칭한 다양한 색채어를 열거하였다.¹⁷⁾ 조선후기의

13) 王槩, 『芥子園畫傳』 1집 제1책, 「설색각법」; 3집 권말, 「설색제법」.

14) 『광해군 일기』 광해군 2년 경술(1610)6월 23일(병신), 「중국 사신 왕급이 물품을 진상하다」, “王遊擊 汲이 鍍金花 2樹, 大紅織金過肩麟紵 1端, 官綠雲紵 1단, 大紅潞紬 1단, 官綠潞紬 1단, 油綠雲絹 1단, 翠藍雲絹 1단, 天靑綺羅 1단, 段靴 1쌍, 絳襪 1쌍, 朱履 1대, 紗襪 1쌍, 池茶 2봉, 息香 2吐, 官扇 2柄, 宮畫 2부를 진상하였다.”

15)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1614) 3월 13일 을축조; 『세종실록』 세종 7년(1425) 윤 7월 26일 계해조;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0, 士小節七, 婦儀 2, 事物, “知學桃紅·粉紅·松花黃·油綠·草綠·天靑·鴉靑·雀頭·紫銀色·玉色諸染色法非惟有補於生計亦是女工之一端.”

16) 金安老, 『希樂堂文稿』 권2, 「屏天亭」, “嘗觀日本屏 風雲入神畫 滄洲寫曲折 萬里論尺寸 遠山鴉深靑 近山靑荷碧 畫用深中靑荷葉綠等彩.”

17) 姜世晃, 『豹菴稿』 卷4, 「綠畫軒記」, “自古言山色者, 曰靑, 曰碧, 曰蒼, 曰翠, 未有言綠者. 然方當春時, 嫩樹細草, 衣被崗麓, 只是綠一色.”

문사 박지원의 글 중에도 채색과 관련된 표현이나 설명이 등장한다. 그는 녹두의 색을 官綠, 油綠, 摘綠, 狀綠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¹⁸⁾ 또한 박지원은 1780년(정조 4) 연행 사행원을 수행하며 쓴 기행문집 『열하일기』에서 청의 문인 尹亨山이 갖가지 채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묘사하며 石綠色·水碧色·乳金色·泥銀色の 안료명을 언급하였다.¹⁹⁾ 박지원의 색채 감각이 남달랐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가 공작 새를 처음 보고 그 화려한 모습에 대해서 “石綠色의 눈동자와 水碧色の 重瞳에 자주 색이 번지고 남색으로 테를 둘러 자개처럼 아롱거리고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니”라고 묘사한 점 때문이다. 석록, 수벽, 藍, 翠 등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새의 생김새를 묘사하였다.²⁰⁾

안료명의 경우 순조 연간 간행된 『만기요람』 중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순조를 위해 호조에서 정부의 재정 내역을 정리한 『만기요람』 재용편에는 18세기말에 공물로 받은 안료에 대한 내역이 나온다. 이를 통해서 안료의 종류와 가격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청록 계열의 안료명을 살펴보면, 大碌, 石碌, 二靑, 三靑, 唐銅碌, 荷葉, 深重靑, 大靑, 回回靑이 있다.²¹⁾ 또한 조선시대 의궤에 국가적 행사에 사용된 각종 의장물, 기물, 회화에 사용된 안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
- 18) 朴趾源, 『燕巖集』 권17 別集, 「諸穀名品」, “某豆 本作綠 以其色名也. 粒大而色鮮者 爲官綠. 皮薄粉多. 粒細而色深者 爲油綠. 皮厚粉小早種者 呼爲摘綠. 遲種呼爲狀綠. 以水浸濕生白芽 爲菜中佳品.”
- 19) 朴趾源, 『熱河日記』, 「忘羊錄」, “亨山起開小皮箱, 出黑紙小扇以示余. 意像陶然. 又出小小瓷盒列置卓上, 莫曉其意. 逐盒開視. 滿貯石綠水碧乳金泥銀. 據卓展蓮 畫老石穉竹.”
- 20) 朴趾源, 『燕巖集』 권1, 煙湘閣選本, 「孔雀館記」, “其後二十餘年 余入中國 見孔雀三 …… 其端各有一金眼石綠點睛水碧重瞳暈紫界藍螺紋紅縠 謂之翠鳥者 非也. 謂之朱雀者 亦非也. 時警蹕而入 晦即鬱鬱而還魂 俄閃弄而轉翠 倏蔽蕤而騰燄 蓋文章之極觀 莫尚於此.”
- 21) 徐榮輔, 『萬機要覽』 재용편 3, 호조공물, 別買一年貢價.

靑綠, 도가의 선약, 선제의 표상

<표 1> 의궤에 수록된 안료명²²⁾

	홍	황	녹	청	백	흑	금·은
회화에 사용된 안료	燕脂 片燕脂 朱紅 唐朱紅 倭朱紅 洋朱 唐朱墨 石間硃(墨) <紫硃> <紫硃> 礮朱紅 燐朱紅	同黃 黃丹 唐黃丹 倭黃丹 漳丹 石雌黃(墨) 石雄黃(墨) 挑黃 土黃 <枯查>	石硃 生石硃 三硃 大硃 生大硃 荷葉 唐荷葉 洋綠	靑花(墨) 二靑 三靑 生三靑 大靑 深靑 洋靑	粉 唐粉 眞粉 鄉粉 合眞粉	眞墨 唐墨 唐水墨 唐炭墨 薄梅月墨 黑烟子 大節常墨 半眞墨	金箔 大金箔 銀箔 泥金 泥銀
기타 안료	金花燕脂 朱土 黃州朱土	常黃丹 深黃	銅硃 唐銅硃 磊綠 綠礬	回回靑 土靑	丁粉	常墨 松烟	皮金

이 가운데 청색의 二靑·三靑·生三靑·大靑은 남동광 안료로 이른바 석청의 일종이고,²³⁾ 심중청은 철사채 안료, 회회청·토청은 瓷器에 사용된 안료였다.²⁴⁾ 녹색 안료 중에서 石硃·生石硃·三硃·大硃·生大硃은 공작석에서 추출한 안료이고, 荷葉·唐荷葉·동록·당동록은 무기합성안료이다.²⁵⁾ 磊綠과 綠礬은

22) 표의 출처는 신현옥, 「조선시대 彩色材料에 관한 연구-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중심으로」, 용인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면.

23) 생삼청은 삼청보다 품질이 우수한 안료라고 한다. 신현옥, 앞의 논문, 49~54면.

24) 심중청 관련 기록으로는 『세조실록』, 세조 10년 갑신(1464) 9월 13일(계해)조에 심중청·토청·삼청을 경상도 관찰사가 울산군에서 채취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중종 15년 경진(1520)11월 27일(신사)에 端川에서 靑花石을 채취하여 바친 기록이 있다. 대청을 채취한 기록은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갑자(1504)3월 4일(을축). 대청을 단양군 산중의 돌 사이에서 얻었다는 보고를 듣고 상의원 관원과 화원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한 기록이다. 한편, 화감청 안료가 18세기 조선 청화백자 뿐 아니라 초상화에도 사용되었다는 연구는 박혜영, 앞의 논문, 33면.

25) 하엽록은 “진석은 아니고, 금은을 제련하여 주홍의 가벼운 가루로 만들 수 있다”는 기록을 보아 무기합성안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권 1431(세종 13)년 3월 6일 경오조; 『세종실록』

암석에서 추출한 안료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²⁶⁾ 한편, 洋靑·洋綠은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개발된 합성 유기 안료로서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19세기 후반기에 조선에 수입되었음을 기록과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들 안료의 가격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 조선말기의 국가재정을 담당한 탁지부의 기록인 『度支準折』에는 각종 물품의 종류·등급·가격·구입 방식과 물품사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표 2>). 『탁지준절』에서 안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채색 혹은 칠물 항목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 채색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²⁸⁾ 회회청(10냥), 삼청(5냥), 이청(4냥), 심중청(3냥4전), 대청(1냥6전2분5리)의 순으로 가격이 매겨져 청색 안료가 여타 안료에 비해 상당히 고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표 2> 조선말기 안료 가격: 『度支準折』 자료

채색명	1냥절가			
	냥	전	푼	리
回回靑	10			
三靑	5			
二靑	4			

권78, 1437(세종 19)년 7월 6일 甲午, “璽性巧百工之事, 自言: “吹鍊金銀, 做朱紅輕粉荷葉綠等物.” 上命蔣英實, 傳其術, 璽言: “以石吹鍊成金銀.” 乃依其言, 旁求石以示之, 則曰: “皆非眞石.” 竟不得傳焉, 但學做輕粉荷葉綠而已, 朱紅亦不傳習.” 한편, 하업록이 황해도 해주에서 채취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실록』 태종 3년 계미(1403) 10월 26일 경오;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3월 6일 경오; 『세종실록』 세종 19년(1437) 7월 6일 갑오. 동록은 산화한 황동 표면에 생긴 물질, 쉽게 말해서 구리그릇에 생긴 녹을 긁어모은 것을 말한다.

26) 경주부 장기현과 황해도 풍천군에서 뇌록이 생산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황해도 풍천군.

27) 변인호, 「조선시대 서양 합성 유기안료의 수입과 활용」, 『한국민화』 3, 2012, 122~138면.

28) 신현옥, 앞의 논문, 60면. 『度支準折』은 조선 말기에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책이다. 왕실과 각 관청, 각 지방의 감영과 부·군·현 등의 소요 물자와 수급 계획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어: 탁지준절(<http://encykorea.aks.ac.kr>).

靑綠, 도가의 선약, 선제의 표상

深重靑	3	4		
倭朱紅・石紫黃	1	7	5	
大靑	1	6	2	5
土黃	1	5		
石雄黃	1	2	6	
唐銅碌	1			
唐朱紅・唐荷葉・石碌		8	7	5
洋靑・洋綠		8		
同黃・深黃		7	5	
大碌		6	7	5
唐黃丹・漳丹		6	2	5
黃丹		4	5	7
唐粉		2	2	
石間硃		1	4	
三碌		1	2	5
眞粉		1	2	
片燕脂(장, 편)		1		
松烟			6	6
磊碌			4	3
碌礪			3	3
丁粉			2	6
燐朱紅			1	6
朱土			1	

(표의 출처: 신현옥, 2008, 62면)

III. 청록의 石藥과 연년장수의 효능

광석에 대한 중국 고대의 문헌 기록은 『尙書』 「禹貢」편에서부터 보인다. 「우공」편 내용 중에 ‘괴석,’ ‘琅玕’ 등의 광석이 여러 토산물과 함께 열거되었는데, 각 지역

貢物로서 다루어진 것이었다.²⁹⁾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각 지역의 금·은·동·철·옥 등 다양한 광석 산물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 중에는 靑腹·碧·蒼玉·琅玕·丹腹·石赭·靑雄黃 등 청·홍·황의 색을 띤 광석이 포함되어 있다.³⁰⁾ 광석에 대한 고대의 지식은 약재로서 그 성질과 효능에 관심이 커지면서 크게 증대되었다. 고대 의약학은 춘추전국시대에 태동하여 특히 신선사상이 유행하고 방술사들의 불로불사를 추구한 적극적인 의약활동이 전개된 秦·漢 무렵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³¹⁾ 본초학 最古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神農本草經』은 신농을 가탁한 後漢 시기의 집성으로서 후세 본초학 발전의 기초가 된 의약서이다.³²⁾ 365종의 약재를 상·중·하 三品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중 가장 상위의 약재인 上藥은 ‘몸을 가볍게 하고 기력을 돋우며 늙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여 준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효능을 지닌 玉石類로 18종이 열거되었는데, 丹砂·雲母·玉泉·石鐘乳·涅石·消石·朴硝·滑石·石膽·空青·曾青·禹餘糧·太一餘糧·白石英·紫石英·五色石脂·白青·扁青이며, 이들의 효능으로 輕身, 延年, 增年, 不老, 神仙 등이 명기되어 이들 약재가 불로·장생·昇仙을 돕는 약재로 이해되고 복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공청·증청·백청·편청이 남동광 계열의 청색 광석이다. 중품에 속한 옥석 중에는 雄黃·雌黃·水銀이 불로·신선의 효능을 지녔고 심지어 수은은 不死를 돕는 것으로 믿어졌다. 하품의 옥석에 분류된 鉛丹도 신명과 통하는 효능을 지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3>).

29) 李民, 「〈禹貢〉中的環渤海地區及其物質文明」, 『인문학논총』 14(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326면. 「우공」편은 帝舜의 신하로서 禹가 황하의 治水에 힘쓰며 중국을 9州로 나누고, 각 주의 토질과 산물에 따라 조세와 공물을 부과하여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30) 『산해경』 권 5, 「中山經」, “飛蛇 又南九十里 曰柴桑之山 其上多銀 其下多碧 多冷石赭, ……”

31) 김용주, 『『神農本草經集注』에 대한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6~7면.

32) 안상우, 「本草書의 系統과 本草學 發展史」,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41~43면; 오창영, 「神農本草經」에 관한 研究,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2009, 3~12면. 『신농본초경』 원본은 失傳되었고 주요 내용은 후대의 본초 저작들에 남아있다. 현재 통용되는 판본은 명·청 이후 흠어진 것을 수집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안상우, 앞의 논문, 42면.

33) 『신농본초경』 권1 「上經」, “上藥一百二十種, 為君, 主養命以應天, 無毒. 多服, 久服不傷人. 欲輕身益氣, 不老延年者, 本上經.”

<표 3> 『神農本草經』(孫星衍 輯本) 중의 도가적 효능을 지닌 옥석

분류	광석명	도가적 효능
玉石上品	丹沙	久服, 通神明, 不老.
	空青	久服輕身, 延年, 不老.
	曾青	久服輕身, 不老.
	青赤黃白黑石脂	久服, 補髓益氣, 肥健, 不飢, 輕身, 延年.
	白青	久服, 通神明, 輕身, 延年, 不老.
	扁青	久服, 輕身, 不老.
玉石 中品	雄黃	煉食之, 輕身, 神仙.
	雌黃	久服, 輕身, 增年, 不老.
	水銀	久服, 神仙, 不死.
	凝水石	久服, 不飢.
	長石	久服, 不飢.
玉石 下品	鉛丹	久服, 通神明.

남북조시대의 道家이자 의약학자로서 外丹術의 종조로 일컬어지는 陶弘景(452~536)이 저술한 『本草經集注』는 『신농본초경』 이후 새롭게 발견된 약물을 보충하여 총 730종의 약물을 수록한 저술로서 500년 전후의 약물학 지식을 총정리한 것이다.³⁴⁾ 이 책에서는 먼저 옥석, 초목, 충수, 과, 채, 미식, 有名未用 7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三品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약물의 性味, 產地, 採集, 형태와 감별, 藥性 등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이 담겨있다.³⁵⁾ 먼저 약재의 일반적인 효능을 수록하고 아울러 도교적 효능을 덧붙였는데, 이는 도가 사상이 만연하여 延年益壽, 不老長生の 약을 구하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仙經』, 『眞誥』, 『養生錄』, 『抱朴子』 등 여러 도가 서적이 인용된 점이 주목된다.³⁶⁾ 따라서 각 石藥의 효능으로 ‘通神明, 輕身長年,

34) 『본초경집주』의 원본 역시 실전되었고 주요 내용은 후에 나온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에 인용되어 전해오고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 敦煌殘卷本이 있다. 안상우, 앞의 논문, 43면.

35) 개별 약물의 설명에서 『신농본초경』과 『名醫別錄』의 내용을 經文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注文을 달면서 『藥對』, 『李當之藥錄』, 『博物志』, 『仙經』, 『詩經』, 『禮記』 등의 약물 정보를 사용하였다. 김용주, 앞의 논문, 44~62면.

36) 김용주, 앞의 논문, 166면.

不老神仙, 增壽神仙, 飛行千里神仙' 등이 열거되었으며, 일부 약재의 경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용이 금해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농본초경』 이래의 도가적 선약으로서의 石藥의 조제와 그 효능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표 4>).

흥미로운 점은 『본초경집주』 중의 도홍경의 주석에서 일부 石藥이 회화의 채색으로도 사용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丹砂, 空靑, 綠靑, 白堊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데, 단사의 경우 ‘오래 복용하면 신명이 통하고, 늙지 않으며, 몸이 가벼워지고 신선이 된다’고 하였으며 곱게 가루를 빻은 것은 채색에 사용된다고 하였다.³⁷⁾ 空靑 역시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늘려 不老하며, 신선이 된다고 하였고, ‘석약 중 가장 귀한 것이며, 의방에서의 사용이 드물고 그림에 사용되는 것이 애석하다’는 주석에 추가되었다.³⁸⁾ 단사와 공청은 각각 불로·신선의 효능을 지닌 선약이면서 丹·靑의 채색임이 명시된 것이다. 이 외에 녹청과 연단, 백악에 대해서도 채색으로 쓰이는 옥석임이 언급되어 있다.³⁹⁾ 이들은 선약과 채색의 연결점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명대의 대표적 본초서인 『本草綱目』은 명 세종의 太醫를 지낸 의약학자 李時珍(1518~1593)이 1578년 완성하여 ‘동양 의학의 거대한 경전’이라 칭해지는 방대한 본초서로서 본초학에 대한 16세기까지의 성과를 집대성하였다.⁴⁰⁾ 그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본초들을 직접 관찰하고 수집하였고, 여러 명의들과 학자의 자문을 구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시진은 石類 약재편에서 空靑, 曾靑, 綠靑, 扁靑, 白靑을 나란히 수록하였는데, 그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모두 구리광산에서 나며 다만 색상과 생김새가 다를 뿐이고, 石靑·石綠·大靑·碧靑·天靑 등의 이칭이 있다.⁴¹⁾

37) 陶弘景, 『本草經集注』 권2, “丹砂: 久服通神明不老, 輕身神仙, 能化為汞, 作末名真朱, 光色如雲母, 可析者良. …… 《仙經》 細末碎者, 謂末沙. 此二種粗, 不入藥用, 但可畫用爾. 《仙方》, 最為長生之寶.”

38) 陶弘景, 『本草經集注』 권2, “空靑: 久服輕身, 延年不老, 令人不忘, 志高, 神仙. 諸石藥中, 惟此最貴. 醫方乃稀用之, 而多充畫也, 殊為可惜.”

39) 陶弘景, 『本草經集注』 권2, “綠靑: 此即用畫綠色者, 亦出空靑中, 相帶挾. 今畫工呼為碧靑, 而呼空靑作綠靑, 正反矣.”; “白堊: 此即今畫用者, 甚多而賤, 世方亦希 …….”; John Hay, *Kernels of Energy, Bones of Earth—the Rock in Chinese Art*,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85, 46~49면.

40) 안상우, 앞의 논문, 49~50면.

41) 李時珍, 『本草綱目』 권10, 金石 4 石類下, “石綠, 陰石也. 生銅坑中, 乃銅之祖氣也. 銅得紫陽之氣而生綠, 綠久則成石. 謂之石綠, 而銅生於中, 與空靑·曾靑同一根源也. 今人呼為大綠.”; 같은 책, 권

<표 4> 『本草經集注』 중 도가적 효능을 지닌 광석

분류	광석명	도가적 효능
玉石 上品	玉屑	久服輕身長年.
	玉泉	久服耐寒暑, 不飢渴, 不老神仙, 輕身長年. 張華又云: 此物平常服之, 則應神仙.
	丹砂	久服通神明不老, 輕身神仙 《仙經》 細末碎者, 謂末沙. 此二種粗, 不入藥用, 但可畫用爾.* 《仙方》, 最為長生之寶.
	水銀	久服神仙, 不死. 《仙經》. 酒和日曝, 服之長生
	空青	久服輕身, 延年不老, 令人不忘, 志高, 神仙. 諸石藥中, 惟此最貴. 醫方乃稀用之, 而多充畫也, 殊為可惜.*
	曾青	久服輕身不老.
	白青	久服通神明, 輕身, 延年不老. 此醫方不復用, 市人亦無賣者
	扁青	久服輕身, 不老. 《仙經》 世方都無用者.
	石膽	久服增壽神仙.
	雲母	久服輕身, 延年, 悅澤不老, 耐寒暑, 志高神仙.
	樸硝	煉餌服之, 輕身, 神仙. 色青白者佳, 黃者傷人, 赤者殺人.
	硝石	久服輕身.
	礬石	久服傷人骨. 色青白, 生者名馬齒礬.
	芒硝	今仙家須之, 能化他石, 乃用於理第一.
	滑石	久服輕身, 耐飢, 長年
	紫石英	久服溫中, 輕身延年.
	白石英	久服輕身長年, 耐寒熱.
	青石	益氣, 肥健, 不飢, 輕身, 延年
	太一禹餘糧	久服耐寒暑, 不飢, 輕身, 飛行千里, 神仙.
	禹餘糧	練餌服之, 不飢, 輕身, 延年.

10, “扁青. 釋名: 石青, 大青. 時珍曰: 繪畫家用之, 其色青翠不渝, 俗呼為大青, 楚·蜀諸處亦有之. 而今貨石青者, 有天青·大青·西夷回回青·佛頭青, 種種不同, 而回青尤貴. 本草所載扁青·層青·碧青, 白青, 皆其類耳.” 『본초강목』 전자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 DB. 이 같은 내용은 Quincy Ngan, ibid, 32~59면 참조.

옥석 중품	金屑	服之神仙.
	銀屑	久服輕身長年.
	雄黃	煉食之, 輕身, 神仙. 餌服之, 皆飛入人腦中, 勝鬼神, 延年益壽, 保中不飢.
	雌黃	久服輕身, 增年不老, 令人腦滿
	石鐘乳	久服延年益壽, 好顏色, 不老, 令人有子.
	石腦	《仙經》有劉君導仙散用之. 又《真誥》云: 李整採服, 治風痺虛損, 而得長生也.
	綠青	此即用畫綠色者, 亦出空青中, 相帶挾. 今畫工呼為碧青, 而呼空青作綠青, 正反矣.
옥석 하품	鉛丹	久服通神明. 即今熬鉛所作黃丹畫用者, 世方亦稀用, 唯《仙經》塗丹釜所須此. 雲化成九光者, 當為九光丹以為釜耳, 無別變煉法
	白堊	此即今畫用者, 甚多而賤, 世方亦希

요컨대 이들은 모두 남동광·공작석의 일종인 것이다. 한편, 이시진은 구리 표면에 약물을 발라 靑 혹은 綠을 굽어낸 것은 銅靑이라고 하여 구분하였고, 靑玉, 靑琅玕은 옥석류로 따로 분류하였다.⁴²⁾

여러 석약들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공청이다. 공청은 모양이 楊梅와 같다하여 양매청이라 불리었고, 속이 비어서 그 안에 물이 든 것을 귀하게 여겼다. 특히 눈병에 특효약이라 알려졌다.⁴³⁾ 조선에서 실제로 공청을 치료약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했던 사실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종과 숙종이 모두 안질을

42) 李時珍, 『本草綱目』 권8, 金石 1 金類, “銅靑. 釋名: 銅綠. 時珍曰: 近時人以醋製銅生綠, 取收晒乾貨之.”; 같은 책, 권10, “方家以藥塗銅物生靑, 刮下偽作空靑者, 終是銅靑, 非石綠之得道者也.”; 같은 책, 권8, 金石 2 玉類.

43) 李時珍, 『本草綱目』 권10, 金石 4, “空靑 《本經》上品. 楊梅靑. 時珍曰: 空言質, 靑言色, 楊梅言似也. 時珍曰: 張果《玉洞要訣》云, 空靑似楊梅, 受赤金之精, 甲乙陰靈之氣, 近泉而生, 久而含潤. 新從坎中出, 鑽破中有水, 久即乾, 如珠, 金星燦燦. 《庚辛玉冊》云, 空靑, 陰石也. 產上饒, 似鍾乳者佳, 大片含紫色, 有光采. 次出蜀嚴道及北代山, 生金坎中, 生生不已, 故靑爲之丹. 有如拳大及卵形者, 中空有水如油, 治盲立效. 出銅坑者亦佳, 堪畫. 又有楊梅靑·石靑, 皆是一體, 而氣有精粗. 點化以曾靑爲上, 空靑次之, 楊梅靑又次之.”

않으면서 이 공청을 중국에서 구해오고자 애썼다. 현종 때는 사신에게 공청을 구입해 오도록 시켰으나 사용한 기록이 없어 구해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숙종 연간인 1717년에도 숙종의 안질 치료를 위해 공청을 구하고자 사신을 보냈는데 당시 공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御醫였던 李時弼(1657~1724)이 특별히 차출되어 사신을 동행하였다.⁴⁵⁾ 이시필이 공청을 본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학 적 지식이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파견되었던 것이다. 공청을 구하고자 하는 조선의 사정을 알게 된 청 조정은 御府에 있는 空靑 1枚를 조선으로 보내주어 이 일은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청을 갈라보니 그 안에 맺힌 장즙이 거의 없어 효험을 보지는 못했다는 기록이다.⁴⁶⁾

이러한 일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귀한 약재인 이 공청은 이후 내의원 관직을 비유하는 詩語로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의 문신 李觀命(1661~1733)의 시에서 그는 내의원 제조직에서 물러난 것을 ‘공청’에서 물러났다고 표현하였다.

내의원에서 제조로 일하며
시탕으로 세월을 보냈건만
공효 없어 스스로 부끄럽기에
고생만 하다 공청을 물러났다오.
藥院忝提舉, 侍湯歲月經
自慙功未效, 辛苦謝空靑.⁴⁷⁾

다시 『본초강목』으로 돌아가서, 이시진은 기존 의약서에 기록된 잘못된 서술을 부정하며 服食과 煉丹 등의 미신과 邪術에 대하여도 비난하였지만⁴⁸⁾ 약효에 관한

44) 『현종개수실록』 현종 원년(1660) 2월 8일.

45)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1717년) 7월 23일 을해. 李時弼(1657~1724)은 화학·생물학·광물학·의학 등 분야의 내용을 담은 『謏聞事說』이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공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가의 그림에 쓰인 채색을 구분하는 법(辨畫家繪采法)」 항목이 있어 흥미를 끈다. 이시필 지음, 백승호·부유섭·장유승 옮김,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2011, 162~165면.

46)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1717년) 10월 13일 계사. 이 일에 대해 후대 이익이 기록한 내용은 李漢, 『星湖僊說』 권6, 萬物門, 「空靑」.

47) 李觀命, 『屏山集』 권2, 「燕行途中口號」.

기존의 신선적 효능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공청에 대한 설명 중에는 “뜻이 고매해져 신선이 된다.”라든지, 증청은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⁴⁹⁾ 과학과 도교의 연단술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다음은 공청에 대한 설명 중 연단술과 신선적 효능을 수록한 부분이다.

『名醫別錄』에서는 “구리, 철, 납, 주석을 변화시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도홍경은 “..... 단사와 합하게 되면 납을 변화시켜 금으로 만들므로 여러 가지 석약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의방에서는 드물게 사용하고, 물감에만 많이 사용하니, 애석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본경: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늘인다.

별록: 건망이 들지 않도록 하고, 뜻이 고매해져 신선이 된다.⁵⁰⁾

공청의 효능에 대해서 “단사와 합하여 납을 금으로 만든다.”라거나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나며 신선이 된다.”고 한 이전의 본초서의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도교의 금단술에서 단약을 구성하는 광물은 五金八石이 알려져있다. 오금은 黃金・白銀・赤銅・靑鉛・黑鐵이고, 팔석은 朱砂・雄黃・雲母・空靑・硫黃・戎鹽・硝石・雌黃이다.⁵¹⁾ 금단을 연조하는 방법은 각종 도교서에 번거롭게 전해지지만 여러 가지 도술이 뒤섞여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는 단사 또는 수은과 납을 합금시켜서 선약을 연조하는 것인데 그 합금을 위한 절차에 각종의 광물 내지 약품이 사용되고 사용되는 기물과 가열하는 방법(火候)도 복잡하고 까다롭다.⁵²⁾ 방사가 金鼎에 약물을 녹이고, 끓이고, 섞어 단약을 조제하는 과정은 화가가 광석을 분쇄하고, 끓이고, 섞어 안료를 만드는 과정과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48) 「이시진」,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전자판.

49) 李時珍(1518~1593), 『本草綱目』 권10, 金石 4, “空靑 …… 主治 …… 令人不忘, 志高神仙.”; 같은 책, “曾靑 …… 主治 …… 久服輕身不老.”

50) 李時珍, 『本草綱目』 권10, 金石 4, 空靑, “別錄曰: …… 能化銅鐵鉛錫作金. 弘景曰: 而以合丹成, 則化鉛爲金, 諸石藥中, 惟此最貴. 醫方乃稀用之, 而多充畫色, 殊爲可惜. 本經: 久服輕身延年. 別錄: 令人不忘, 志高神仙.”

5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醫藥, 「丹砂神理辨證說」.

52) 車柱環, 『韓國의 道教思想』, 同和出版社, 1984, 260면.

만들어진 화려한 청록의 채색은 불로장생의 효능과 이미지를 표상하였을 것이다.⁵³⁾

IV. 청록의 도교적 함의와 행위자성

유학의 위세가 엄존하던 조선시대에도 도교사상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정쟁과 土禍로 避世를 택한 이들에게는 더욱 침잠하는 바가 되었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조선 丹學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金時習(1435~1493)을 필두로 洪裕孫(1431~1529)·鄭希良(1469~1502)·鄭石廉(1506~1549)·朴枝華(1513~1592)·鄭礎(1533~1603) 등이 ‘조선 단학과’로 일컬어지며 道脈을 형성하고 있었다.⁵⁴⁾ 조선중기에는 도교 계열의 저술이 활발하였는데 仙道에 대해 언급한 趙汝籍(16~17세기)의 『靑鶴集』과 북애자의 『규원사화』(1675)가 있고, 한국의 선가 계열의 인물 전기를 수록한 洪萬宗(1643~1725)의 『海東異蹟』(1666)과 『旬五志』(1679), 韓無畏(1517~1610)의 『海東傳道錄』, 許穆(1595~1682)의 『淸士列傳』 등의 저술이 나왔다. 도교 연단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주석서로는 정립(1506~1549)의 『龍虎訣』을 효시로 郭再祐(1552~1617)의 『養心要訣』 및 『丹書口訣』, 『丹家別旨口訣』 같은 內丹 계통의 수련서가 나왔다.⁵⁵⁾ 이처럼 조선조에 일부 인사들 사이에 수련적인 도교가 신봉되어 직접 수련에 종사한 사람도 있었고 그 방면의 도서의 주석과 해설을 행하기도 하며 특이한 사조를 조성하였다.⁵⁶⁾

중국 전래의 도교 전적 중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애독되었고 영향이 컸던 책은 『參同契』와 『黃庭經』이었다. 특히 漢代의 魏伯陽이 지은 『참동계』는 易의 爻象을 빌어서 논했다고 해서 『주역참동계』라고도 불리었는데, 연단법의 으뜸으로 받들어지는 책으로서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어 참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다수의 주해서가

53) John Hay, *Kernels of Energy, Bones of Earth—the Rock in Chinese Art*,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85, 49~50면.

54) 차주환, 앞의 책, 63~72면.

55) 정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도교문화연구』 4, 1990, 122면. 17세기 도가·도교 관련 저술은 임채우, 「17세기 조선 도교의 탈중화의 이념적 전환」, 『道敎文化研究』 50, 2019, 100면.

56) 차주환, 앞의 책, 143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자가 만년에 『참동계』에 몰두하여 『參同契考異』라는 주해서를 냄으로써 해서 조선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다.⁵⁷⁾ 위백양의 『주역참동계』는 본래 金丹을 연조해서 外物의 복용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한 外丹書이지만, 주자는 이 책에서 설명한 표현이 ‘음양’과 ‘精氣’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丹을 인체 중의 精氣神의 수련에 의해서 체내에 만들어낸다는 內丹으로 해석하였다.⁵⁸⁾ 주자가 考異를 썼다 해서 『참동계』는 이단으로 취급되지 않고 조선 유학자들이 애독하는 책이 되었다. 또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몸에 丹을 이룩한다는 수련적 도교는 심신의 수양,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도 용이하여 널리 수용되었다. 퇴계 이황도 장수를 회구하는 입장에서 『참동계』에 큰 관심을 표명했고, 홍만종도 『참동계』 비롯한 도교 서적들을 탐독하였다.⁵⁹⁾

17세기에는 『주역참동계』에 대한 조선인의 주석서가 찬술되었는데 권극중의 『參同契註解』(1639)와 南九萬(1629~1711)의 『參同契吐註』 등이 있고, 18세기에는 徐命膺(1716~1787)의 『參同攷』(1786)가 나왔다. 『참동계』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관심과 주석서 저술은 아무래도 외단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주자가 “단사·공청·금고·수벽이 비록 근세에 세상에 쓰이지 않는 것이되 실로 세속 밖의 구하기 어려운 자연의 기이한 보물”이라 하며 진자양(陳子昂)의 「감우시(感遇詩)」를 이에 비유한 대목은 조선 문인들 사이에 인용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 구절이었다.⁶⁰⁾ 조선 중기 도학자이자 정치가인 李玄逸(1627~1704)이 申益愷(1672~1722)과 주고받은 간찰 중에는 “朱子の 齋居感興詩 序文에 나오는 ‘空靑’과 ‘水碧’은 仙家の 藥物이니, 자세한 것은 『風雅翼選』의 註에 보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어 仙家の 藥物로서의 공청·수벽에 대한 문인들 간의 논의의 일단을 보여준다.⁶¹⁾ 조선 후기 徐命膺 또한 주자의 이 구절을 인용하며 참동계가

57) 차주환, 위의 책, 88면.

58) 박병수, 『周易參同契』의 성립과 그 성격, 『천지개벽』 15, 1996, 205면; 신동원, 「朱熹와 연단술: 『周易參同契考異』의 내용과 성격」, 『韓國醫史學會誌』 14집 2호, 2001, 53~56면.

59) 차주환, 앞의 책, 88~89면. 이 밖에 이 책을 읽은 것이 확인되는 인물로는 宣祖, 김시습, 남효은, 박상, 김안국, 서경덕, 조식, 유희춘, 박승량, 황준량, 조목, 박과열, 권호문, 고경명, 이덕홍, 유성룡 등이 있다. 조남호, 「선조의 주역과 참동계 연구, 그리고 동의보감」, 『仙道文化』 권15, 2013, 402면.

60) 朱熹, 「感興詩」, “余讀陳子昂感寓詩 愛其詞旨幽遠 音節豪宕 非當世詞人所及 如丹砂空靑金靑水碧 雖近乏世用 而實物外難得自然之奇寶.”

금단을 차용하여 先天易을 논하였다는 자신의 해석을 연결시켰다.⁶²⁾

한편, 문학 부문에서의 도교 관련 창작이 흥미를 끈다. 16·17세기에 도가·도교 계열의 서적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애독되었고 이른바 遊仙詩 창작의 성행으로 이어졌던 점이 눈에 띈다.⁶³⁾ 유선시란 신선 전설을 제재로 仙界傲遊나 煉丹服藥을 통해 불로장생의 염원을 노래하거나 혹은 離塵去俗하는 선계에서의 노닐을 통해 현실에서의 갈등과 질곡을 서정, 극복하려 한 시이다.⁶⁴⁾ 선조조에서 광해·인조조에 이르는 시기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균·허난설헌·이춘영·신흠·김상헌·김찬한 등이 있다.⁶⁵⁾ 유선시는 구절마다 신선전설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산해경』·『한무제고사』·『열선전』·『속선전』 등 신선전의 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이는 창작이 어렵다. 이들 유선시 작가들이 단학파의 주요 인물들과 밀접한 정신적 교감을 맺고 있었음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⁶⁶⁾

도교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關王廟의 설립과 關帝信仰의 성행이 이어져 도교는 저변으로 더욱 확산되었다.⁶⁷⁾ 도교에 대한 사상적·문학적 관심의 확대와 청록산수화와와 직접적 연결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록색조로 상징되는 선계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학 부문에서 선경을 묘사한 修辭 중에는 유독 ‘碧’·‘翠’·‘蒼’·‘靑’·‘綠’의 색채어가 적극 사용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신선이 사는 道觀을 碧洞이라 하였고, 선계의 복숭아를 ‘碧桃’, 그 꽃을 ‘碧桃花’라 하였다. 신선을 ‘綠髮翁’이라 일컬었으며, 仙童은 ‘靑童’, 신선이나 도사가 타고 다니는 소는 ‘靑牛’라 칭해졌다. 이 밖에 선계를

61) 李玄逸(1627~1704), 『葛庵集』 권12, 「答申明仲」, “朱子感興詩序文中靑水靑 蓋是仙家藥物 詳見風雅翼選註.”

62) 徐命膺(1716~1787), 『保晚齋集』 권2, 「和陳子昂感遇詩韻」, “朱夫子稱其丹砂空靑 金膏水碧 實物外難得自然之奇寶. 但恨不精於理而託仙以爲高也. 蓋其微旨 若曰子昂託仙 欲因此以發儒道 如參同契之借金丹 以發先天之妙.” 『참동계』를 기반으로 한 서명응의 선천학 연구에 대해서는 이봉호, 「徐命膺의 先天易과 道教思想」, 『도교문화연구』 24, 2006, 69~98면.

63) 遊仙詩에 대한 연구는 정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도교문화연구』 4, 1990;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강민경,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64) 정민, 앞의 1990 논문, 101~102면.

65) 강민경, 앞의 2002 논문, 11면.

66) 정민, 앞의 1990 논문, 121면.

67) 임채우, 「17세기 조선 도교의 탈중화의 이념적 전환」, 『道敎文化研究』 50, 2019, 103~104면.

나타내는 詩語로 碧空, 青天, 碧雲, 靑霞, 碧海, 滄海가 사용되었는데 하늘과 바다의 본연의 색이 푸른빛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선계를 노래한 詩詞에서 그 사용이 두드러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문신 鄭蘊(1569~1641)의 시문 중에 漢武帝의 고사를 주제로 지은 賦 「자리를 펴놓고 신선을 기다리다(設坐候仙官)」에서는 곤륜산을 ‘비취색(翠色)’으로 묘사하였고, ‘碧玉’·‘靑霞’ 등의 詩語를 사용하였다.

천자가 이에

파란 빛의 꽤옥 소리를 울리고

푸른 노을빛 소매를 떨치고서

두 눈썹을 추켜올리고 한번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못 신선을 기다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소.

天子於是, 鳴碧玉之珮, 振靑霞之袖,

揚雙眉兮粲一笑云, 我望羣仙盖久.⁶⁸⁾

또한 청록산수화에서 금니를 함께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한 그림을 金碧山水畵라 하는데 ‘금벽’이라는 색채어가 선계·도관을 지칭하는 비유로 사용된 예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⁶⁹⁾ 조선후기의 문신 李學達(1770~1835)의 시 중에 ‘巫山の 金碧色’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무산은 楚懷王의 고사에서 비롯되어 신선계를 나타낸다.⁷⁰⁾ 徐有聞의 『연행록』 중에는 “..... 붉은 난간이 영롱하며 나는 듯 한 처마가 아득하여 金碧이 눈에 부시니 정말 신선이 사는 곳이라.”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화려한 단청의 건물을 금벽이라 칭하고 이를 신선 세계와 연결지은 점이 주목된다.⁷¹⁾

68) 鄭蘊(1569~1641), 『桐溪集』續集 권1, 「設坐候仙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https://db.itkc.or.kr/>).

69) 금벽이 사찰 건축의 화려한 단청을 상징하는데 사용된 용례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제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도가적 세계를 나타낸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70) 李學達(1770~1835), 『洛下生集』冊一, 竹樹集(辛酉), 「秋日 申·具二生見過 設白酒魚鱸 座間賦贈」. “巫山金碧色. 天外澹靑靄. 遲汝衝泥遠. 微涼改席佳. 野堂開竹樹. 秋雨酌茅柴. 振觸南來意. 西風吹我懷.” 무산을 선계로 보는 것은 초나라 懷王이 高唐에서 무산의 신녀를 만난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文選』宋玉 高唐賦.

71) 徐有聞(1762~1822), 『戊午燕行錄』 제4권, 기미년(1799, 정조 23).

이와 관련해서 明末 괴석 애호풍조의 성행 배경에서 저술된 『素園石譜』(1613)에서 저자 林有麟이 지은 「自序」의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거대하게 치솟은 바위들은 오악에 흠어져 있으며 도교의 서책에서 말하는 洞天福地는 신령한 선인들의 거처이니 모두 기이하고 푸른 바위가 있다.”⁷²⁾ 신선의 거처인 동천복지의 기이한 바위를 靑·碧의 색채로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중국 청대 건륭 연간 제작의 괴석 중에는 청금석(lapis lazuli)으로 仙界를 묘사한 작품들이 여럿 눈에 띈다. 위낙 고가의 재료다보니 규모는 20cm를 넘지 않는 소형의 작품이지만 깊은 산중의 道觀과, 신선으로 보이는 인물상 그리고 사슴이며 학이 조각되어 있다(<그림 1>). 청금석의 형상과 색채는 자연스럽게 동천복지의 푸른 바위를 연상시켰을 것이며, 이 경우 청색의 광석이라는 물질이 주체가 되어 예술가로 하여금 선계를 표현하도록 행위자성(agency)을 발휘한 것으로 파악된다.⁷³⁾



<그림 1> <仙界>, 淸, 건륭연간, 청금석, 12×15.6cm, 臺北故宮博物院

72) 林有麟(1578~1647), 『素園石譜』(1613), 「素園石譜自序」, “石之大峯嶽 盡於五嶽而道書所稱洞天福地, 靈蹤化人之居 則皆有怪靑奇碧焉.” 신정수, 『『운림석보』와 『소원석보』의 비교 연구-靈璧石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42, 2015, 137면에서 재인용.

73) 선계를 조각한 청금석 괴석이 건륭연간에 다수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소장의 청금석 괴석에 대한 설명은 John Hay, 앞의 책, 43~44면 참조. 한편, 물질 지표(Index)가 예술가(Artist)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서 알프레드 겔은 현대 건축에서의 신조인 ‘재료에 대한 진실(Truth to materials)’을 언급했다. 재료는 그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의 본질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재료가 예술가(장인, 건축가 등)에게 예술가가 아닌 재료가 원하는 것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 내재한 형상을 꺼낼 뿐이라고 했던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의 예가 대표적이며 그의 작품 <노예>가 그 예이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의 고산수(枯山水)정원에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정원에 배치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이 경우도 재료/물질이 그 자체의 외양과 특성으로 인하여 예술가에게 작용을 하는 혹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 하였다. A. Gell, 앞의 책, 30면.

석청·석록 광석이 이루어내는 청록의 채색은 회화에서 초월적인 신선세계를 묘사할 때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明 중기의 화가 仇英(1494~1552)은 역대 대가들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의 탁월한 감각과 기교로 청록산수화의 새로운 전형과 유행을 창출한 화가이다.⁷⁴⁾ 구영의 청록산수화는 17세기에 조선으로 전래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무렵 화단에 채색화의 제작이 양적·질적으로 두드러진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⁵⁾ 도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던 17세기에 구영의 <요지연도>가 국내 화단에 영향을 미쳤던 점이 주목된다.⁷⁶⁾ <요지연도>는 17세기에 조선에 수용되어 조선말기에 이르기까지 그 제작과 감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⁷⁷⁾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은 《權大運耆老宴會圖》 병풍이다(<그림 2>). 숙종 15년(1689) 權大運(1612~1699)을 비롯한 남인 대신들이 기로연을 베풀었던 盛事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계병이다. 기사환국으로 재집권한 네 명의 기로와 관련 인물들이 누각에 앉아 연회를 즐기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입식의 상차림과 월대와 난간이 갖추어진 중국식 건축, 그리고 중국 사녀를 연상시키는 여인들이 등장하여, 중국식 연회장에 조선의 대신들이 앉아있는 모습이어서 특이하게 여겨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⁷⁸⁾ 여기

74) 구영 청록산수의 도교적 성격에 대해서는 Susan E. Nelson, "On Through to the Beyond: The Peach Blossom Spring as Paradise," *Archives of Asian Art* 39(1986), 23~47면; Stephen Little, *Realm of the Immortals: Daoism in the Arts of China*(Chicago: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2000); 許文美, 「仙氣飄飄長樂未央—明仇英仙山樓閣」, 『故宮文物月刊』 282(2006), 71~80면; 楊晉宜, "Qiu Ying xianjing tu yanjiu 仇英仙境圖研究," M.A. Thesi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2; Quincy Yik Him Ngan, 앞의 논문(2016), 207~24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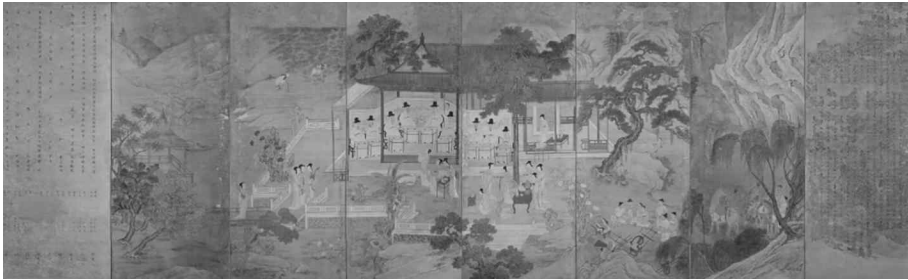
75) 조선에 전래된 구영의 회화에 대해서는 유미나, 「조선 후반기 仇英 繪畫의 전래 양상과 성격」, 『위작, 대작, 방작, 협업 논쟁과 작가의 바른 이름』 2018 미술사학대회 발표집, 2018.6, 12~18면; 서운정, 「조선에 전래된 구영의 작품과 구영 화풍의 의의」, 『미술사와 시각문화』 26, 2020, 44~52면.

76) 조선에 전래된 구영의 <요지연도>에 대해서는 박정혜, 「궁중 장식화의 세계」,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108~122면; 차미애, 「恭齋 尹斗緒 一家의 繪畫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10, 332~338면; 박본수, 「朝鮮 瑤池宴圖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18면.

77) 요지연도에 대한 17세기 문헌으로 鄭文孚, 『農圃集』 권1, 「瑤池宴圖」; 南龍翼, 『壺谷集』 권8, 「別杆城李使君」; 李瑞雨, 『松坡集』 권7, 「畫幅雜詠」; 숙종, 『列聖御製』 권12~39, 「題瑤池大會圖」가 있다. 박본수, 「朝鮮 瑤池宴圖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22~23면.

78) 이원진, 「권대운기로연회도(權大運耆老宴會圖)—권대운과 기로들을 위한 잔치」,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교재, 2009, 172~197면; 박정혜, 앞의 논문, 101~102면; 김지선, 「『권대운기로연회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0.

에서는 이 작품에 표현된 산수배경을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그림 3>)에 그려진 <요지연도>와 비교해보면 산수배경이 유사한 구성과 비중으로 배치되어 있어 기로연이 행해진 장소가 선계임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산과 언덕, 그리고 수목의 표현에 사용된 석청과 석록의 채색은 선계를 표상할 뿐 아니라 70대 기로들의 장수를 기원한 뜻을 담은 것이고 그 원형은 <요지연도>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선들의 잔치인 요지연도의 청록산수화 양식 원형(prototype)이 주체가 되어 화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림 2> 《권대운기로연회도》, 병풍, 1689년, 견본채색, 199.0×485.0cm, 서울대박물관



<그림 3> 《정묘조왕세자책례계병》 8폭 병풍, 1800년, 견본채색, 112.6×237.0cm, 국립중앙박물관

청록의 화려한 채색이 나타내는 仙境의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 도원도 주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에서도 도원은 선계를 상징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李廷龜(1564~1635)는 무릉도원을 노래하며 ‘공청’의 시어를 사용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복사꽃 물에 떠 흘러 세상 티끌 끊겼으니
무릉의 나무꾼이 옛날에 길을 잃은 곳이런가
천선의 옛 자취는 이제 찾을 곳이 없고
바위 곁 낡은 비석에 수신이 있어라
깎아지른 듯 구름 사이에 있는 살아 있는 그림 병풍
문노라 그 누가 신필로 허공에 푸른 점을 찍었는가
시냇물 소리 밤낮으로 흘러 패옥을 울리는 듯하여
늘 행인들로 하여금 흐뭇한 마음으로 듣게 하누나.
流水桃花絕世塵, 武陵樵客昔迷津, 天仙舊跡尋無所, 巖畔殘碑有受辛,
削立雲間活畫屏, 問誰神筆點空青, 泉聲日夜鳴環珮, 長使行人滿意聽.⁷⁹⁾



<그림 3> 작자미상, <도원도>, 견본채색, 103.6×57.6cm, 국립중앙박물관

79) 이정귀, 『월사집』 제12권, 『續接錄中』.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DB 참조(<https://db.itkc.or.kr/>).

여기서 ‘무릉의 나무꾼’, ‘天仙의 옛 자취’를 노래한 이 시에서 사용된 ‘空靑’의 시어는 ‘허공에 푸른 점을 찍었는가’로 번역되었지만, 이는 선약으로서의 공청일 수도 있고 안료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도원도>(<그림 4>)는 속세와 단절된 무릉의 仙境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산과 언덕에 가해진 청록의 색채는 바로 공청이라는 귀한 광석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교와 결부된 공청의 신비한 효능은 청록산수화 원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화가가 도원도를 제작하는데 다시 영향을 미쳤다. 청록과 청록산수화가 행위력(Agency)을 발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청록산수화에 사용된 광물성 안료인 남동광과 공작석이 고대에서부터 의료용 약재이기도 하고 도가의 단약에 쓰이는 仙藥이기도 했던 점을 문헌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청록 색채와 안료, 그리고 청록산수화에 함축된 도가적 상징을 고찰하였다.

청록의 색채와 안료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지만, 연구의 초점을 이루는 천연 무기안료는 石靑·石綠으로 대별되고 그 입자의 크기에 따른 색조의 차이 혹은 질에 따라 頭靑·二靑·三靑·大靑, 頭綠·二綠·三綠 등의 안료명이 사용된 것을 보았다. 이들 안료를 이루는 원석에 대한 기록은 의약서인 『神農本草經』·『本草經集注』·『本草綱目』 등의 本草書類에서 찾을 수 있는데, 空靑·曾靑·扁靑·白靑 등의 石類 약재가 그것이다. 그 약효는 고대에서부터 발전된 신선사상 및 도교와 결부되어 輕身, 延年, 不老 등의 효능과 심지어 神仙으로 화한다는 효능이 명시되어 있어 예로부터 仙藥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金丹을 연조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한 금단도에서 일컫는 五金八石에 空靑이 포함되어 중시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초기부터 ‘조선 단학과’로 일컬어진 도학의 맥이 형성되어 있었고, 조선중기에는 도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서 도가서가 저술되고 遊仙詩가 유행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관왕묘의 설립과 관제신앙의 성행이 이어져 도교는 저변

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시대 시문에서 청록 색조로 상징되는 선계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학 부문에서 선경을 묘사한 修辭 중에는 유독 ‘碧’·‘翠’·‘蒼’·‘靑’·‘綠’의 색채어가 적극 사용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신선이 사는 道觀을 碧洞이라 하였고, 선계의 복숭아를 ‘碧桃,’ 그 꽃을 ‘碧桃花’라 하였다. 신선을 ‘綠髮翁’이라 일컬었으며, 仙童은 ‘靑童’, 신선이나 도사가 타고 다니는 소는 ‘靑牛’라 칭해졌다. 이 밖에 선계를 나타내는 詩語로 碧空, 靑天, 碧雲, 靑霞, 碧海, 滄海의 사용도 눈에 띈다.

도교의 선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관람자라면 청록산수화에 표현된 청록의 산과 바위는 공청·증청 등의 선약과 불로장생과 우화승선의 약효를 연상시켰을 것이다. 선계를 노래한 수많은 문학세계를 공유한 문사들에게 청록산수화는 선계의 시각적 재현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를 말해주는 현존 작품으로 17세기 작 《권대운기로연 회도》 병풍과 <도원도>를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투고일: 2021.05.07

심사일: 2021.06.13

게재확정일: 2021.06.14

참고문헌

李時珍, 『本草綱目』

王槩, 『芥子園畫傳』

林有麟, 『素園石譜』

『天工開物』

『산해경』

『神農本草經』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DB, 선문대학교, 2012,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검색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전자판

강민경,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곽동해, 『단청과 불화에 전용된 전통안료의 문헌사적 연구』, 학연문화사,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 안료와 원료광물』,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광물학회, 2018

문동수, 『청록산수, 낙원을 그리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문은배,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2012

우비암, 손인숙 · 변인호 옮김, 『채색화 안료연구』, 월간민화, 2018

이상현, 『전통회화의 색: 우리 회화 전통안료 바로알기』, 가일아트, 2012

이시필 지음, 백승호 · 부유섭 · 장유승 옮김,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2011

정 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교재, 2001

車柱環, 『韓國의 道教思想』, 同和出版公社, 1984

허 준 지음 ·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동의보감』 제2권 : 외형편, 휴머니스트, 2008

홈스 웰치, 안나 자이텔, 윤찬원 역, 『도교의 세계: 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 사회평론, 2001
Alfred Gell, Art and Agency, An Anthropological Theory,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 Oxford, 1998

John Hay, Kernels of Energy, *Bones of Earth-the Rock in Chinese Art*, New York: China Institute in America, 1985

Edward H. Schafer, *Tu Wan's Stone Catalogue of Cloudy Forest, A Commentary and Synopsis*, Connecticut: Floating World Editions; Distributed by Antique Collectors' Club, 2005

- 고연희, 「18세기 문학에서의 색채 표현과 강세황의 회화」, 『韓國漢文學研究』 54, 2014
- _____, 「申緯의 감각과 申命衍의 色彩」, 『韓國漢文學研究』 75, 2019
- _____, 「문헌으로 살피는 조선후기 색채(色彩) 인식」, 『民畵연구』 8, 계명대학교 한국민화연구소, 2019
- 김용주, 『本草經集注』에 대한 研究,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우형, 「주희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에 나타난 만년 사상 연구-연단술의 재해석과 새로운 영생관의 모색」, 『유학연구』 43, 2018
- 김지선, 「『권대운기로연회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0
- 박병수, 『周易參同契』의 성립과 그 성격, 『친지개벽』 15, 1996
- 박본수, 『朝鮮 瑤池宴圖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 박정혜, 「藏書閣 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研究』 259, 2008
- 박혜영, 「조선 후반기 청록산수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변인호, 「조선 후기 서양안료 및 염료 연구」, 경주대 박사학위논문, 2014
- 신동원, 「朱熹와 연단술: 『周易參同契考異』의 내용과 성격」, 『韓國醫史學會誌』 14(2), 2001
- 신재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궤도(金櫃圖)>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정수, 『운림석보』와 『소원석보』의 비교 연구-靈壁石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42, 2015
- 신현옥, 「조선시대 彩色材料에 관한 연구-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중심으로」, 용인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안상우, 「本草書의 系統과 本草學 發展史」,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오다연, 『朝鮮 中期 泥金畵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창영, 『神農本草經』에 관한 研究,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우현수, 「조선후기 瑤池宴圖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경묵, 「물건의 힘과 작동-망(work-net)의 상상력: 행위소로서의 인간·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재고」, 『비교문화연구』 22(1), 2016
- 李 民, 「〈禹貢〉中的環渤海地區及其物質文明」, 『인문학논총』 14(1),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이봉호, 「徐命膺의 先天易과 道教思想」, 『도교문화연구』 24, 2006
- 이수미, 「조선시대 청록산수화의 개념과 유형」, 『靑綠山水畵·六一帖』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유물도록 제14집, 국립중앙박물관, 2006
- 이원진, 「권대운기로연회도(權大運耆老宴會圖)-권대운과 기로들을 위한 잔치」,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 학고재, 2009
- 임채우, 「17세기 조선 도교의 탈중화의 이념적 전환」, 『道教文化研究』 50, 2019
- 정 민, 「16,7세기 遊仙詩의 자료개관과 출현동인」, 『도교문화연구』 4, 1990

- 조남호, 「선조의 주역과 참동계 연구, 그리고 동의보감」, 『仙道文化』 15, 2013
- 차미애, 「恭齋 尹斗緒 一家의 繪畫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10
- 허 용, 「조선시대 도원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Richard Vinograd, “Some Landscapes Related to the Blue-and-Green Manner from the Early Yüan Period”, *Artibus Asiae*, Vol. 41, No. 2/3, 1979
- Edward H. Schafer, “The Transcendent Vitamin: Efflorescence of Lang-kan,” *Chinese Science*, March 1978, Vol. 3, March 1978
- Quincy Ngan, “The Materiality of Azurite Blue and Malachite Green in the age of the Chinese Colorist Qiu Y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h.D. dissertation, 2016
- _____, “The Significance of Azurite Blue in Two Ming Dynasty Birthday Portraits,” *Metropolitan Museum Journal* 53, 2018
- 許文美, 「仙氣飄飄長樂未央-明仇英仙山樓閣」, 『故宮文物月刊』 282, 2006

Blue-and-Green, the Agency of Immortality

Yu, Mi-na

The Azurite and the Malachite consist the major pigments for the Blue-and-green Landscape, but they have also been the drugs and medicines for remedy and at the same time the Daoist Elixir to attain immortality. This paper tries to track the ancient records related to the azurite and the malachite and see how and when they were associated with the Daoist connotation. The study began with examining the color names and pigment names in the ancient writings, and then the medicine names in the classic medical books. The names kongqing(空青) · zengqing(曾青) · pianqing(扁青) · baiqing(白青) were listed in such medical books as Shennong-bencaojing(神農本草經) · Bencaojing-jizhu(本草經集注) · Materia Medica(Bencao gangmu, 本草綱目). They were cited as having such medicinal effects as ‘light body’, ‘prolonged life’, ‘eternal youth’ and even ‘the transcendence to an immortal being’. This attests to the understanding that the above mentioned medicinal stones were also major ingredients for the Daoist Elixir. Moreover, in the poems and pro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haracters belonging to blue and green such as bi(碧) · cui(翠) · cang(蒼) · qing(靑) · lu(綠) were frequently used to describe the immortals’ land. In such circumstances, the blue and green colors applied on the mountains and rocks in the blue-and-green landscape mus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mystical medicines such as kongqing(空青) and zengqing(曾青) and their longevity effect, as well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ortals’ la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material index blue-and-green pigments and the blue-and-green landscape serving as Agent in the Art Nexus and affecting the Recipients; painters and viewers.

Key Words : Blue-and-Green Landscape, Azurite, Malachite, Daoism, Immortals,
Alfred Gell, Agency